



연중 제10주일(6월 9일) 예수님과 베엘제불, 예수님의 참가족 (마르 3,20-35)



예수님과 베엘제불

아리 세페르가 그린 예수님과 베엘제불은 원래 광야에서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다. 하늘을 배경으로 예수님과 악마가 높은 곳에 서 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악마를 바라보고 있고, 악마는 양손으로 세상을 가리키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악마는 왼손으로 빵을 집듯이 바위산을 집으려 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혹의 눈길을 보낸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느님의 말씀뿐임을 명백하게 밝힌다.

작가 아리 세페르 | 1852년, 캔버스에 유채, 345x241cm,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9번 “용기장이”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악의 무리에서 보살피 주소서.
- 주님, 항상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르코 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20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21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려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22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23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 한 나라가 갈라지면 그 나라는 버티어 내지 못한다. 25 한 집안이 갈라지면 그 집안은 버티어 내지 못할 것이다. 26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지면 버티어 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27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29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



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30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31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32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3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 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34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35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 내지 못할 것이다.”(마르 3,25)

형제의 의견을 방해하고, 공동체 안에서 삼삼오오 어울리며 분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르 3,35)

같은 주님을 모시는 형제로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화합하고 협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편을 가르고 끼리끼리 지내며 서로를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가르고 분열시키는 행위는 절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서로 다른 우리들이 더욱 화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도록 합니다.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하나의 나무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각기 다른 성령의 은사가 갈라지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서로 함께 화합과 일치를 이루며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 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9번 “용기장이”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